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민·관 방역 사활

고창군, 긴급회의 대책반 가동
5만 3천여두 백신접종 중 주력
군산시,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연무소독 방역·예찰활동 집중

고창군 해리면에서 럼피스킨병 양성축이 발생, 민관 합동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달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해리면 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양성 소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방역대책반을 가동했다. 이날 노형수 부군수 주재로 재난관련 부서장과 고창부안축협, 고창군한우협회, 고창낙농협회, 고창군수의사회 등이 참석해 감염병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해당 농가는 소 54마리를 키우는 축산 농가다. 관내 공수의사가 진료 중 피부결절 및 병변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해 채취한 시료를 검사 의뢰한 결과, 30일 최종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군은 즉시 관내 소 사육 농가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10km 이내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고창군에서 지난날 31일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차량이 축산농가 주위를 소독하고 있다.

발생 농장에는 초동방역팀이 운영돼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육 중인 소 54두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두 살처분됐다.

고창군은 11월 2일까지 관내 축산농가 842호, 5만2,488두분의 백신을 공급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 50두 미만의 소규모농가는 관내 공수의사의 점

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흡혈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만큼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도 진행한다.

노형수 부군수는 "럼피스킨병 관내 발생에 따른 민관합동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백신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소 사육 농가에서도 소독뿐만 아니라 방역 작업에 힘써달라"

고 말했다.

군산시가 럼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전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의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초로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 발생을 시작으로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25일 전북 부안군 등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됐다. 이에 시는 가축방역 상황실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역학 관련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또한,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읍면동이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진행중이다.

시는 또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전화 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 및 특이증상 조기발견을 위해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11월3일까지 관내 모든 소들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산시 농업축산과 양현민 과장은 "전염병 유입·전파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종합

全羅日報

2023년 11월 01일 수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소 럼피스킨병' 확산 조짐에 차단 총력

전염병 위기 단계 최고 '심각'
24시간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농가 이동 제한 6건 행정명령
예찰강화와 백신접종 등 실시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군산지역이 긴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긴급 가축방역 상황실 운영에 들어가는 등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럼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 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럼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 농가 주변으로 연무 소독을 하고 있으며, 전파 매개 곤충의 활동이 둔화돼 소멸이 예상되는

11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또 농장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 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와 특이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점검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럼피스킨 예방백신을 주말인 지난 27일, 28일 당일날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반 4개반을 비롯해 전업 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 수에 접종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까운 부안에

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소 사육 농가와 시설 관계자는 전염병 유입 차단은 물론 전파방지를 위해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매개 곤충 방제,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줘야 한다"라며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 방역기관(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지난 9월 중순경 해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김경철기자

군산시, 렘피스킨병 차단 24시간 비상체계

가축전염병 최고 심각단계로 격상...역학관련 농가 이동제한 6건 행정명령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렘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렘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지난 9월 중순경 해

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렘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매개 곤충의 활

동이 둔화되어 소멸하는 예상일인 11월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화 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 및 특이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렘피스킨 예방백신을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 반 및 전업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오는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낙현 기자

전주매일

2023년 11월 01일 수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소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

축산 관련 사람·차량·역학 관련 농가 이동제한 등 6건 행정명령 시행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렘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렘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지난 9월 중순경 해

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렘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매개 곤충의 활동이 둔화되어 소멸하는 예상일인 11월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이다.

시는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화 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 및 특이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렘피스킨 예방백신을 주말인 27일, 28일 양일간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 반 및 전업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오는 11월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며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소 렘피스킨병 유입을 막아라

군산시, 24시간 비상체계 유지·이동제한 등 차단 총력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소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렘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해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소 렘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지난 9월 중순경 해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소 렘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전파매개 곤충의 활동이 둔화돼 소멸하는 예상일인 11월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화 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 및 특이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 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소 렘피스킨 예방백신을 주말인 27일, 28일 양일간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 반 및 전업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해 오는 11월 3일까지 지역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까운 부안에서 소 렘피스킨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소 사육농가 및 시설 관계자는 전염병 유입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줘야 한다.”며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군산시 렘피스킨병 차단 총력

연무소독·백신접종 등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렘피스킨병이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렘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9월 중순경 해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렘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매체 곤충의 활동이 둔화돼 소멸하는 예상일인 이달 10일경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렘피스킨 예방백신을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반 및 전업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오는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 중이다.

/군산=이찬우 기자

군산시, 축산농가 소 렘피스킨병 차단 총력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소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렘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해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렘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새전북신문

2023년 11월 01일 수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소 렘피스킨병 예방-차단 주력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렘피스킨병 차단에 주력중이다.

시는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화 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와 특이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점검 등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렘피스킨 예방백신을 지난 달 27일, 28일 양일간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 반과 전업규모 농가에 신속한 공급으로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중이다.

시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백용규 기자

군산, 소 럼피스킨병 차단 ‘총력’

차단방역 홍보 및 예찰활동 강화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럼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럼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

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매개 곤충의 활동이 둔화돼 소멸하는 예상일인 11월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화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 및 특이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럼피스킨 예방백신을 주말인 27일, 28일 양일간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반 및 전업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오는 11월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가까운 부안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소 사육농가 및 시설 관계자는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출입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박수현 기자